

촉촉함으로 남는 색.



첫눈에 사로잡는 촉촉한 입술, 코로나 신제품 모이스춰 써지 립스틱. 연함없이 유지되는 촉촉함으로 풍부한 색이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입술이 활짝 피어, 더욱 촉촉함을 더해세요.

*P4-199901-2012-706403, 09-28-777000, 09-03-4574, 25-01-777, 19-03-75489-6, 20-01-719-2700, 22-01-701-0001, 02-02-042-536-8702,
 07-02-204-2100, 08-02-719-2007, 09-02-000000 20-02-543-344-01, 09-03-030-7440, 08-04-700-00-11, 08-03-71980, 09-03-020-0100, 09-03-044-0304,
 09-04-000-770-0000, 25-03-077-0000, 20-03-0000 20-03-05-5470, 09-04-000-770-0000-0000
 *01-01-000-000-000-0000-0000-0000

FAT!SO?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J.I.N. C.E.S.I.G.N.
SPACE PLANNING
SINCE 1994

What We Do

본 사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회사로서
다국적 회사 오피스 디자인, 증권사, 해외
유명 브랜드 망품관, 병원 및 주거공간
프로젝트를 기획, 디자인, 시공을 일괄적으로
주관하는 종합 디자인 회사입니다.

Our Client Lists

- Toyota Motor Korea
- Apple Computer Korea
- General Electric Korea
- Motorola Korea
- Gucci Korea
- Volvo Car Korea
- Good Morning 증권
- Burberry
- La Prairie
- Or Lane
- 워커힐 Apt
- 현대 Apt
- 보석점
- 외 병원, 전시관 등 다수

대표 이사 Profile (백 남진)

- 1976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64회)
- 1981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과 학사(77학번)
- 1985 이화여자대학원 정치외교과 석사
- 1991 University of North Texas
Interior Design Master Degree
- 1994 (주) 진디자인 설립
- 2001 (주)진 디자인 대표이사



General Electric



Apple Computer



Good Morning 증권



Burberry Shop

(주) 진 디자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2-10 금양빌딩 5층 (우) 135-010
Tel: 02-515-5929, Fax: 02-514-7490
Web Site: www.jin-design.co.kr

FAT!SO?

몸에 관한 유쾌한 이야기

제6회 페미니즘 문화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6회 페미니즘 문화제

FAT!

피임

네 자궁을 노래하라

- 피임을 둘러싼 즐거운 이야기... 8

삶의 지혜, 피임법 10

몸

방자한 나의 육체

- 어쨌든 니가 상관할 바 아니지 22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24

학치

당신들은 안전한가

..... 32

INTERVIEW

업서의 각가 영경을 만나다 18

SO?

이화여성위원회

결코, 한번도 소유하지 못한

- 당신들의, 내 몸 46

4회 서울여성영화제 47

바비인형의 제국 48

영화

솔직한 기획 반성글 4/ 여성위원회 소개 6/

원점에서 보내는 투서 30/ 편집후기 56

여성위원회 세미나 중계

몸에 대한 억압을 넘어서 성적 쾌락으로 50

6회 페미니즘 문화제 행사일정 54

솔직한 기획 반성글

데스 (정영 98)

이화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그들이 귀기울일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페미니즘 문화제를 고민하면서 봉착하게 된 첫번째 자문(自問)이었고, 아직까지 다 풀어내지 못한 숙제이기도 하다.

'6회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 되어왔던 것보다 더 발전되고 더 다양한 주제를 문화제 안에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이화인들 의식안에서,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능동적으로 그 변화의 속도와 맞추어 가고 있는가...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로서가 아닌 우리가 이화인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것, 그리고 이화인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으면서도 가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주제찾기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고민했다. 단순히 페미니즘 문화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활동들을 통해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은 얼마나 진보했는지, 사회인식의 변화는, 그렇다면 그 방향은?

계속되는 이같은 질문속에서 이화인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봐도 좋은 법한 "몸"에 관한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다.

FAT!SO?



실제로 우리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에 관한 것보다 더 크고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고학년에겐 취업문제가 절실할 수도 있겠고 다른 이화인들에겐 또 다른 문제가 크고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몸'은 대학생의 위치에서 꼭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한다.

사회가 성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성이 주요한 이슈일때 여성의 몸은 가장 성애화되기 쉬운 대상이다. 성애화가 단순히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여성은 항상 성애화의 대상이 되고 사회의 시선에 의해 고정되어 그 기준에 벗어난 대상은 비정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던 여성들에게 공동체 놀이를 주제로한 개막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퍼포먼스 강연, 여성의 몸에 대한 전시전과 반(反)성폭력 학칙제정에 관한 퍼포먼스 그리고 폐막제로 '바버인형의 제국'상영 등을 준비하였다.

여성에게만은 여전히도 날카로운 '몸'에 대한 사회의 시선, 여성의 몸에 관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나의 몸에 대해 아는 것을 시작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이 한 번의 행사로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내가 나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가졌다고 말하기는 힘들지고 모른다. 하지만 페미니즘 문화제가 그 시작이길 바란다. ■

남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남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남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남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이제,
모자를 끼고는 자들은 페미니스트라 불린다.
여기,
'나를 지우는 그들만의 인식에,
'이화'를 향한 가치있는 폭언에,
예쁜 여자, 착한 여자, 깽뎌쓰에
대항하고, 거칠게 내놓는 '우리'가 있다.
여기,
'나를 긍정하고, '이화'를 긍정하고, '여성'임을 긍정하는
'우리'가 있다.

여성위원회는요,

성들을 사랑해요

별 역할을 무시하는 곳이지,

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없이 수다를 떨 수도 있구요,

원자격 조건이 없는, 자치단위랍니다

여성억압을 고민하고, 일상에서의 작은 반란을 꿈꾸는 모든 이화연들을 기다립니다.



네 자궁을 노래하라!

피임을 둘러싼 즐거운 이야기
삶의 지혜, 피임법

네 자궁을 노래하라!

- 피임을 둘러싼 즐거운 이야기

엠마 (보고 98)

우리는 자신의 몸이 남(男)의 것인 옷기는 사회에 살고 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례는 한없이 말라야만 하는 사회 정의에 충실하기 위해 고른 배를 쥐어뜯는 여성들의 모습이지만, 조금 더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면 재생산으로 통제되는 여성의 자궁이 떠오른다. 누구나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지루한 비디오에 한 술 더 떠서 정숙한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순결사탕이나 온장도를 하사 받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훌륭한 가족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연주기법이나 콘돔의 사용 등을 학적으로 배워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별다른 효과가 없는 듯 보이지만 온근한 힘을 발휘하며 여전히 여성의 몸을 타자화하고 있는 성교육과 여성을 한껏 왜곡시키는 성문화 행태에 대고 이렇게 여성의 몸을 무시할 수 있느냐고 소리치기도 힘들다. 그러나 지리하더라도 여성의 몸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내' 문제이고, 진정 내 몸이 내 것인가라는 물음의 답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다소 애매하지만 중요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거칠게 말하면 이는 성적인 관계 맺기와 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그것이 관철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임법이 개발되면서 여성은 임신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의 쾌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피임 하나만으로 잠재적인 임신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피임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원하는 바에 좀 더 접근하고 원치 않는 몸의 변화를 조절하는 힘을 일정부분 확보하게 되었다. 남성들이 피임을 기피하거나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방편으로 피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피임법을 의학적 정보로서 알리는 데 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알아가고 느끼는 과정으로, 더 나아가 내 몸이 내 것임을 당당히 주장하는 관계 맺기의 기반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혹 당신은 여성의 자궁이 인류의 맥을 이어줄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마굿간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디 헛소리하지 말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우리, 자궁이 그 무엇이기에 이전에 여성의 몸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삶의 지혜, 피임법

아래글은 여성주의 웹진 www.unninet.co.kr에서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질적인 피임방법을 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콘돔 이외의 먹는 피임약을 포함한 모든 피임법에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의사와의 상의를 통해 자신의 체질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I 콘돔



1. 콘돔을 포장에서 꺼냅니다.



2. 콘돔을 잘린 구멍을 비틀어 씌웁니다.



3. 콘돔을 잘린 구멍을 비틀어 씌웁니다. 되어 찢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공기 압력에 의해 정액이 콘

§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 남자가 성교 시 느낌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착용을 꺼리지만 피임의 효과 외에 성병의 위험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 피임약은 미혼 여성이 부정기적인 성관계에 대비해 먹기가 힘들고 미망이라고 하지만 호르몬제가 들어있어서 당뇨, 비만, 여드름 등의 호르몬 관계 질환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 콘돔사용으로 생기는 10~15%의 피임실패율은 사소한 부주의 때문이거나 사전에 꼼꼼히 준비한다면 문제없습니다.

§ 자연주기법과 콘돔사용을 병행하면 99.9%의 피임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

1. 삽입하기 전에 발기된 음경에 덮어씌웁니다.
2. 착용하기 전에 콘돔 끝의 작은 주머니 부분을 비틀어 공기를 빼냅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성교 중 이 부분이 압력을 받게

돔 밖으로 새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3. 사정 후에는 콘돔의 아래 부분을 손으로 권 상태에서 질로부터 빼내고, 이 때 정액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콘돔의 끝 부분을 잡고 위에서부터 벗겨 내리세요.



4. 콘돔을 잘린 구멍에서 잘라내어 분리 시킵니다.



5. 콘돔을 잘린 구멍에서 잘라내어 분리 시킵니다.



6. 콘돔을 잘린 구멍에서 잘라내어 분리 시킵니다.

[주의 사항]

1. 반드시 삽입 전에 콘돔을 착용해야 합니다. 삽입 후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성기가 발기하면서 쿠파씨액이 수 백 마리의 정자가 있는 쿠파씨액이 나오기 때문에 임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2. 반드시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고 콘돔 착용 시 반지나 뽕족한 손톱에 의해 콘돔이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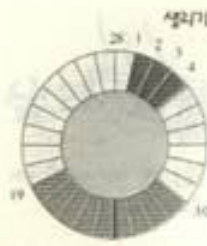
3. 사정이 끝난 후 남성의 성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액이 새어나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민자형, 돌기형)와 디자인의 콘돔이 소개되고 있고, 여관로비나 약국이나 편의점 섹스샵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평균적으로 10개들이 4,000이고 기능과 디자인에 따라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II 자연주기법

§ 생리주기가 정확한 여성에게만 가능하고, 여성의 배란 후 난자가 살아 있는 1일과 정자가 여성의 생식기내에 살아 있는 2-3일을 고려하여 배란을 전후로 한 임신 가능시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 배란일 주변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질외사정을 이용하여 피임을 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 배란되는



임신가능기간

28일 주기인 여성의 예

시점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방법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주기도 변동될 수 있고 정종이 나팔관 내에서 살아있는 기간이 3-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임해야 할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실패율이 낮습니다.

§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고 콘돔과 병행하여 사용할 때 보다 안전한 피임과 섹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달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데 이 방법은 월경이 규칙적이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주기에 피임을 하고자 할 때 다음 주기의 월경 시작일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한 후 거꾸로 14일을 뺀 날이 배란일입니다. 보통 배란은 다음 생리일 시작일로부터 14일전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생리주기가 28일인 여성의 경우, 이번 생리시작일과 다음 생리 시작일의 중간정도에 배란이 이루어집니다.

임신가능 위험이 높은 기간은 지난 6개월간의 월경주기 중 가장 짧은 주기에서 18일을 뺀 날짜로부터 가장 긴 주기에서 11일을 뺀 날짜까지이며, 예를 들어 월경주기가 28~30일인 여성은 월경주기 10일부터 19일까지가 임신가능 위험이 높은 기간입니다.

III 먹는 피임약

§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 성분을 가진 약으로 여성의 배란과 생리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매일 한 알씩 21일간 복용하고 7일간을 휴약합니다.

§ 먹는다고 곧바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복용하여 빈번한 성관계를 갖는 기혼 여성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 일단 정기적인 성관계를 갖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피임실패율이 적은 편(2-3%)이지만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복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복용법]

어떤 주기의 피임을 원할 때 그 주기의 월경이 시작되면 시작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먹기 시작해서 매일 1알씩 먹어야 합니다. 혹시 하루를 잊었을 경우 12시간 내에 2알을 먹어야 하고 2일 이상 잊었을 경우에는 피임의 실패율이 높아집니다. 한 주기 용을 다 먹은 후 기다리면 월경이 시작됩니다.

[의학적 작용]

먹는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하고 있어서 먹으면 임신 시와 비슷한 호르몬 상태로 만듭니다. 정자와 수정될 수 있는 난자가 배란되는 것을 막고, 자궁경부를 막고 있는 점액의 점도를 끈끈하게 유지시켜 정자가 통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정란이 착상하는데 필요한 자궁내막의 증식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피임약의 복용을 잊었을 때]

- 일정한 복용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 경우 복용을 잊은 정제를 바로 복용하고 다음날부터 정한 시간에 복용을 계속하면 피임의 효과가 지속됩니다.
- 일정한 복용시간보다 12시간이 더 지났거나, 1정 이상 복용을 잊었을 때 이 경우 피임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별도의 피임이 필요합니다.





복용을 잊은 정제는 버리고 그 다음 정제부터 예정대로 복용을 하면 됩니다. 그 포장을 모두 복용할 때까지 자연주기법이나 기초체온법을 제외한 다른 비호르몬적 피임법을 병용해야 합니다.

-피임약을 한 알 분실하였을 경우
만일 그 날 분의 약을 한 알 분실했을 경우 다음날 분의 약을 당겨서 복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기가 28일에서 27일로 하루 줄어들지만 피임효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구토나 설사를 하게 되면 피임약이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서 피임효과가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피임약 복용을 계속하면서 포장이 끝날 때까지 다른 피임법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및 부작용]

임신할 생각이 있으면 3-4개월 전에 끊어야 합니다. 두통과 메스꺼움이 있고,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당뇨병 등의 호르몬성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임신부나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당뇨병, 고혈압, 간기능 장애, 겸상적혈구 빈혈 등이 있는 사람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호르몬 함량이 적어서 몸에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통해 복용해야 합니다.

IV 사후 피임약

※ 사실 이 방법은 피임법이 아니지만 공공연하게 임신을 막기 위해 행해지고 있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피임은 성교 전에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사후 피임약은 피임법이 아니고 이 명칭은

또한 잘 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에 따르면 10대와 20대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맨 처음엔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가 공공연한 피임의 방법으로 사용되면서 시판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 성분을 알고있는 약사들이 조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피임약보다 호르몬제의 농도가 훨씬 진한 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관계를 가진 후 72 시간내에 먹어야 효과가 있고, 두통, 메스꺼움 등의 몸의 불편함이 따릅니다.

§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임방법으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부적당하고, 임신 상태에서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섹스'가 상대방과의 소통이고 피임이 섹스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후 피임약은 더 이상 피임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V 절외사정

§ 20대나 신혼 부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피임도구들을 사러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피임방법이라기보다 남성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근거한 심리적인 방어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임신이 안 된 거라면 그 날이 '운 좋게도' 배란일이 아니기 때문이거나 심각한 무정자증을 앓고 있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 절외사정이 눈 가리고 아웅인 이유는 사정(임청난 정액의 방출) 전에 이미 쿠퍼씨관에서 쿠퍼씨액(정자가 살고 있다) 나와서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게다가 절외사정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정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극도의 긴장상태와 온갖 신



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조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VI 페미돔

§ 여성의 질 내부를 감싸줌으로써 여성 스스로가 임신과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 부드러운 폴리우레탄이 재료로써 콘돔과 길이는 같지만 폭은 조금 넓습니다.



§ 실리콘 윤활제가 한 겹 쌓여있고 양끝에 유연한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 반경이 좁은 안쪽의 고리는 삽입이 쉽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바깥쪽의 큰 고리는 성교 중 페미돔이 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 페미돔은 1회용으로 탈론(질에 삽입하는 생리대)처럼 질 내부로 삽입할 수 있고, 콘돔처럼 남성의 발기가 필요하지 않아 성관계 전에 삽입하면 됩니다. 사용법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법]

1. 페미돔의 내환을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서 질 내부로 쉽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2. 손가락을 꼭 편 상태에서 질 내부로 삽입합니다. 안으로 엄지를 넣고 내환을 질 내부로 가능한 한 밀어 넣습니다.

3. 질 내부로 삽입한 후 페미돔의 외부 링과 몸체의 일부가 질 외부에 남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페미돔은 여성의 질 내부를 감싸는 것으로 사정 후 성교를 중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제거할 때는 정액이 흘러내지 않도록 하면서 외부



의 링을 비틀어 살짝 당깁니다.

VI 살정제

질 안에 삽입하는 좌약으로 정자를 죽이면서 피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섹스 바로 전에 삽입해야하고 약 30-40분의 동안 효력을 갖습니다. 주로 기혼인 40대 아줌마들이 사용하고, 장기 사용을 할 경우 질에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VII 그 밖에 효과적인 피임을 위해

꼭 명심해야 할 것들

+ 생리기간 중에는 섹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에도 임신이 가능하고 세균감염의 위험마저 있습니다. 생리기간에 자궁경부가 열려서 성기가 삽입되는 과정에서 자궁내부까지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피임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성교를 절대 해선 안 됩니다.

+ 질외사정은 절대 피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루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 피임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일로 미루거나 해선 안 됩니다. 본인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권유해야 합니다.

+ 순간의 망심이 큰 화를 부릅니다. 패란기에도 임신이 안 됐다는 몇 백만분의 1의 희귀한 경험이 임신을 막아주진 않습니다.

+ 편의주의적인 자가진단의 오류(난 무정자증이야, 난 불임이야...) 때문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신은 남의 일이라는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엽서의 작가 영경을 만나다!

interviewer - 마리

영경씨 작품 봤는데, 너무 멋져요. 작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경 전체적으로 저는 몸에 대한 제 자신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우선 작품 '생리'는요, 여성들이 생리를 한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생리를 비하하는게 싫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생리'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구요, 거리낌 없이 생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는 여성들이 생리 전후에 겪게 되는 우울하고, 혼자있는 듯 고독한 기분을 나타내려고 했구요.

작품 '자화상'이나 '상생아'는 굉장히 거침없고 적나라하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했구요.

영경 저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사랑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인 너무 안타까웠어요.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자신의 성기를 관찰하지도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잖아요. 저 역시도 제 자신의 성기를 관찰하는 것이 두렵고 겁끄러웠구요. 제게 있어서 작품은 제 자신의 문제들이나 고민들을 치유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꺼내놓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작품 '상생아'는 프리다 칼로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것이에요. 다리를 오무리고 가슴도 드러내지 않은 여성과 다리를 벌려서 성기를 드러낸 여성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 형상은, 사회적으로 정숙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과 험프다고 여겨지는 여성이 실제로는 다르지 않다는 제 생각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림 size 55 는요?

영경 여성들이 스스로 외모를 가꾸고 다이어트를 하는 행위들이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행동이 타자의 시선에 자기를 맞추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작은 사이즈인 55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혹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미인상'에 자신을 맞추는 여성들이, 제 자신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런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경 저는 처음에는 그저 인체를 그리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었어요. 하지만 계속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여성의 몸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났고, 그것이 제 작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성주의에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제 삶을 전부 여성운동에 투자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일상에서 생겨나는 여성으로서의 작은 문제들을 소재로 작품을 해나갈 생각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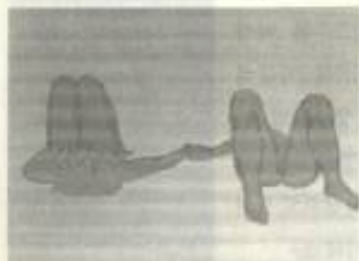


그럼 앞으로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세요.

영경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거나 한 것은 아닌데요, 저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작품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성관계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되고 전혀 이야기되지 않는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또, 여성의 몸이나 여성을 둘러싼 관계들이 기존의 남성 작가들에 의해서 성애적으로 대상화되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자매애나, 혹은 동성애 등의 여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성의 눈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요.

여성위원회나, 혹은 6회 페미니즘 문화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영경 우선 문화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준비하는 여성위원회 분들은 힘내고 잘하세요. :) 



관심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http://femmage.culture.co.kr/cyk>



방자한 나의 육체

어쨌든 니가 상관할 바 아니지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방자한 나의 육체, 어쨌든 너가 상관할 바 아니지.

마리 (영문 98)

남녀의 몸의 일부기관이 해부학적으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혹은 개개인의 몸의 사이즈나 생김새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 속에 담겨있는 인간 육체는 단순한 '다름'의 기준을 넘어서 재어지고 판단되며, 일정한 기준에 맞춰지길 요구받는다. 이렇게 육체가 구성되는 방식에는 권력의 측면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하여 나의 '개인적인' 육체는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와중에 여성의 육체는 끊임없이 재단되고 기준에 어긋나는 여성들의 육체는 끊임없이 소외되고 구박을 받는다.

우리는 그 '다름'이 열등함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1. 뽕브라 콤플렉스

- 난 브라자 하기 싫다!!

유방 or 젖

: 포유 동물 (哺乳動物)의 유즙 (乳汁)을 내는 기관.

- 교회사 뉴에이지 국어사전

<주>

: 단, 인간 여성의 유방의 경우에는 섹시함의 표상이며, 남성들을 성적 욕망과 환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음

- 여성위원회 어록



그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철사를 넣어서 모양을 교정하는 브라를 해야하는 우리들의 불편한 가슴. 유두를 보여줘서는 안되지만 모양은 붓고하고 먹음직스럽게 가꿔야 한다. 작은 가슴을 가진 여성들은 뽕브라를 해야하고, 큰 가슴을 가진 여성들은 C컵까지밖에 팔지 않는 우리나라 속옷가게에선 주문을 하거나 비싼 수입 브라를 해야하고, 가슴이 없는 여성은 비정상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큰 가슴, 작은 가슴, 치진 가슴, 짝 가슴 모두모두 행복하게 되는 우리들의 작은 반란!

2. 완벽하지 않은 내 몸, 완벽하게 사랑하기.

- FAT!! SO?! 난 맘껏 먹고싶다!!!

미인대회랑 다이어트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가, 혹은 해야하는가? 나는 다이어트가 하고 싶은가, 그럼 왜 하고 싶은가?

내가 원해서 하는 다이어트. 하지만 똥똥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한밤중에 배가 고파 벌떡 일어나면서까지 살을 빼려고 할까?

우량소를 뽑는 것처럼 내 몸을 달고 재고 등급을 매기는 미인대회, 괴롭고 힘들지만 해야했던 다이어트에 대한 상쾌한 문제제기! **100**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박희정 (의적 미술)

우리는 늘 매일같이 자신의 몸을 본다. 또한 '눈만 뜨고 있다면' 당신이 어느 곳에 있건 무엇을 하건 간에 '여성의 몸'을 볼 기회는 러시아 위를 가득 채운 출퇴근 차량 만큼이나 널려 있다. 당신은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아니, 이 질문 자체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넘쳐 나는 여성의 몸들은 이미 그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성의 몸'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자.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인가?

아마 너무 당연하게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당연히 그렇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여성의 몸을 여성 자신의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브래지어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려서 불편한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조차 어색한 일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하루 종일, 때론 잠잘 때조차도 몸에서 떼어 놓지 않는 그것. '왜?'라는 물음표를 한 번 달아 보자. 당신은 그걸 '왜' 하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다. '속옷'이라는 규격화된 절차의 의미나, '유두'의 선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이거나 그러나 각종 매체에서 보여지는 브래지어 광고를 보면 브래지어의 핵심 기능이 가슴을 '모아주고' '올려주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심지어 소위 '뽕(!)'이라 불리우는 갓가지 패드를 대어서 실제 자신의 가슴보다 과장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은 지칠 줄을 모른다.

물론 철사와 고래힘줄로 만들어졌던 그 옛날 서양의 무시무시한 코르셋보다야 덜 하겠지만 브래지어로 대표되는 갓가지 체형 보정용 속옷들이 신체에 편안함을 주는 것을 결코 아낀 텐데 왜 여성들은 그것을 몸에서 한시도 떼어 놓지 못하는가?

체형 보정용 속옷. 글자 그대로 몸을 다듬기 위한 속옷이다. 이 말은 곧 이상적인 육체의 틀이 있고 그 규격에 들어 맞지 않는 부위(!)를 규격에 맞게 다듬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이상적인 육체라고 할 때는 '건강'의 의미보다는 '미'와 관련된다. 아름다워지려는 노력이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렇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눈을 통한 아름다움인가? 그리고 왜 수많은 여성들이 때로는 건강을 해칠 위험에 노출되면서까지 그 아름다움을 향한 행위에 매달리게 되는가? 그리고 왜 유독 여성들만이 그 치열한 '몸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가?

아름다움의 핵심내용은 '성적인 매력'이다. 큰 가슴과 잘록한 허리, 날씬한 팔과 다리. 남성의 시선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다. 물론 남성들도 몸을 가꾼다. 그러나 그 정도는 여성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또한 그 가공의 내용도 다르다. 남성들은 여성들만큼 몸 가꾸기에 매달리지 않는다.



남성들에게 몸, 즉 외적인 육체의 미는 부차적인 평가 요소이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서 몸은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몸은 끊임없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부위별로 세분화되고, 그에 따라 기준이 제시된다. 이에 맞지 않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롱의 언어 또한 다양하다. (무다리, 호박, 뚱녀, 절벽) 남성은 육체적 아름다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여성에게 있어서는 '다른'이라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다. '머리 나쁜' 여자는 용서해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육체의 아름다

여성도 성적인 대상이지만 자신의 몸을 통해 일어나는 성적인 행위에서 쉽게 주체가 되지 못한다.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는 것도, 자신의 몸에 대해 알려는 것도 암묵적으로 금기 시 된다.

움을 가꾸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남성의 몸은 일상적인 데 반하여 여성의 몸은 지나치게 성애화되어 있다. 여성의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성적으로 코드화

되어 있다. 때문에 여성의 몸은 함부로 드러내지 못한다. 동시에 끊임없이 성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며 감상과 흠쳐보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남성들의 몸은 '드러내어 지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지 않는다. 더운 여름날 길거리에서 옷통을 벗어도 그리 크게 흥 될 일이 아니다. 남성의 몸에서 유일하게 성애화 되어 있는 부분은 오로지 성기뿐이다.

사회적인 명명자(命名者)의 권한은 남성에게 주어지 있다. 섹시한 것, 성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도 남성들의 시선에 의지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성적인 것으로 대상화되는 위치에 놓인다. 각종 매체에서 보여지는 성적인 것의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 여성의 신체와 관련되어 있다. 즉, 여성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사회적인 엿보기의 대상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여성의 몸은 대상물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주체적인 인격을 부여 받지 못한다. 여성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은 그 여성의 것이 아니다. 여성의 육체를 남성의 시선에서 결정하고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회에서 여성은 스스로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여성도 성적인 대상이지만 자신의 몸을 통해 일어나는 성적인 행위에서 쉽게 주체가 되지 못한다.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는 것도, 자신의 몸에 대해 알려는 것도 암묵적으로 금기 시 된다. 자신의 성기를 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대답은 'No' 일 것이다. 단지 보기가 힘든 위치에 달려 있어서는 아닐 것이다. (거울 같은 걸 이용해 볼 수도 있을 테니까) 내 몸의 일부분인 곳이지만 그 곳에 대해서는 '애기를 낳을 때'를 제외하고는 알아서도 안되고, 알 필요도 없는 곳이라고 암묵적으로 교육 받았기 때문은 아닐는지.

남성들에게 여성의 성기를 그리라면 아마 두 눈을 감고도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셀 수도 없이 많은 포르노를 통해 지겹도록 여성의 성기를 보아왔을 테니까 말이다.

피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남성에게 있다. 임신의 경우 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피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남성의 필요에 좌우된다. 그것은 강압적일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다는 자발성을 가장한 강요일 수도 있다. 그 남성의 성지식이라는 것이 '안데다 짜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별다른 피임방법 없이 성관계를 치르고(!) 때로는(사실은 매우 빈번히) 낙태의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섹스를 제외하고 여성의 몸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출산'의 과정을



한 번 살펴보자. 지난해 군가산제 논쟁이 벌어졌을 때의 일이다. 논쟁에 참여한 몇몇 여성들이 '출산'과 '국방'의 의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여성들은 '출산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많은 남성들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로 되받아 쳤다. 많은 이들이 출산을 '개인적인 것', '여성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은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재생산의 중요 수단이다. 때문에 '출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지'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에 가시적, 비가시적인 사회적 통제가 발휘된다.

낙태는 여성의 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따라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문제에는 여성 자신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낙태는 공식적으로 불법이다. 물론 강간이나

산모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있다. 낙태를 살인으로 보느냐, 개인의 자유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혹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다. 그러나 그 일련의 논의들 속에서 정작 아이를 태고 있는 여성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낙태는 여성의 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따라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문제에는 여성 자신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태 관련 논의들이 여성을 때 놓은 제 '태아'나 '유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를 낳는 과정에 있어서도 획일화 된 출산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산모가 일률적으로 산부인과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낳는



다. 그러나 이것이 산모를 위해 고려된 유일한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은 선진국의 실례를 보거나, 아니면 가까이 우리 나라의 전통출산문화¹⁾를 살펴 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출산문화의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신체구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수중분만이나 앉아서 혹은 서서 아이를 낳는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제왕절개율 1위'라는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산의 과정과 여성의 몸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스스로에 몸에 대해 '결정권'을 지녀야 한다. 여성의 몸은 대상물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여성에게는 현실이 아니다. 바바라 크루거가 통찰한 바 대로 너의 몸은, 나의 몸은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전쟁터인 것이다. (Your Body Is Battleground!) 그가 이 말을 남긴지 수 십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육체에 대한 조작이 가능해지고, 네트워크의 발달이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주기 보다는 더 파편화 시킬 위험이 커져 가는 사회 속에서 여성의 몸은 더욱더 여성 자신의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스스로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몸을 알아야만 한다. 단순히 물리적 차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들에 관해서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자신의 몸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 몸이 얘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 또한 중요하다. 내 몸을 둘러싸고 일어 나는 상황에 대해 내 몸이, 즉 내가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만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전통적 출산 방법은 '앉아서' 낳거나 '서서' 낳는 것이었다. 이 방법이 인체의 구조와 중력 등을 고려할 때 출산에 더 효과적인 자세라고 한다.



우리는 담론과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살고있다. 몸에 관한 이야기와 이미지 또한 넘치고 호를 만큼 흔하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몸'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관찰하라. 이제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



원점에서 보내는 투서

가을(경영97)

'당신의 몸은 진정 당신의 것인가?' 이번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나와 모든 여위인들이 계속해서 되뇌었던 질문이다.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미로. 그러나, 다시금 내 안에서 고개를 드는 것은 '나는 여성으로서 진정 행복한가?'라는 물음이었다.

물도 없는 가부장제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20여년을 살면서, 4년 이상 이화라는 공간에서 철저한 이방인으로 지내오면서, 나 역시 남들 못지 않은 OUTSIDER였다. 여성이기에 그러하다고 믿었고, 이화 안에서 나의 위치를 찾지 못했기에 그러했다고 변명했었다.

그러한 내가, 지금, '나는 여성으로서 행복하다. 이화인이기에 더욱 행복하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여성위원회에서 배운 '나를 긍정하는 힘' 때문이었다. 즐겁고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이화라는 공간에서 내 인생을 바꾸어 낼 활된 여성의 기운 - 그 숨겨진 힘을 찾아낸 것이다.

다시금 원점에 선 나는 내게 주어진 女性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으로서의 나 자신을 향한 나르시즘에 빠져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와 당신과 그녀들 모두가 여성이라는 이름에 더 없이 자랑스러움을 느낄 그 날 까지 구조화된 권력과 억압에 대항해 싸워나갈 것이다. ■



당신들은 안전한가?

이화에서의 반성폭력 학칙이
지니는 의의와 필요성

당신들은 안전한가?

(이화에서의 반성폭력 학칙이 지니는 의의와 필요성)

비 (보고 98)

우 동경 이전에 파괴가 있었고, 남만화 이전에 폭력이 있었다.

1. 왜 '이화'를 말하는가?

- '이화'공간이 던지는 의미

이화 공동체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있어 다분히 위협적인 것이었다. 남성권력이 부재한 곳에서 여성들이 자신들만의 문화를 창조해내고, 영유하는 모습은 끊임없이 이를 단죄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야기해왔으며, 이화를 둘러싼 배타적인 언설들과 96년 고대 사건과 같은 집단적인 성폭력은 이를 단적으로 반증하는 예이기도 하다.

대사회적으로 이화는 두 가지로 의미화된다. 소위 이야기되는 머리는 비었고, 제수없게 눈만 높은 '이대생'과 조금 더 심하게 제수없고 심지어는 싸가지도 없는 '페미니즘'인지 뭔지를 하는 여자들

의 대명사로 말이다. 작은 모르지만 못생기고, 열등감으로 점철되었음에 틀림없는 그녀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고, 밉그릇을 빼앗아 가려는 느낌도 든다!

"그렇다, 여자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렇지. 이래서 여대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해."

이화를 비롯한 여자대학은 조금 배운 것들에겐 분리주의의 현현(顯現)으로 일한다. 그러나 '경험의 주체로서의 나'는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면 언제고, 20여 년 간 나를 길들여온 그것, 내 안의 가부장적 모두를 깨뜨려 세운 것이 '나'의 정체성을 지니고 세상을 보

고 있다 단언하기는 여전히 힘들지만, 적어도 이화 공간 안에서 나를 억압하는 일방의 성별 정치는 전부가 아니며, 세상은 남성과 남성이 아닌 중(種)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성학의 메카로 자처해 온 이화 당국 역시 나름의 진보적인(?) 제

스처를 취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우리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보내주신 당신의 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11시만 되면 도서관 문도 잠근다고, 기숙사에서는 사생활 통제까지 한다고, 안전을 구가하다 혹여 하는 맘에, 있지도 않은 '성희롱'인가를 단속하기 위한 학칙까지 만든다고...

그렇다면, 학교의 논조대로라면 철저히 보호받고 있음에 틀림없는 이화인들은 안전한가? 물으면, 사실 그렇지 않다. 아니, "결코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일견 성폭력의 시각지대로 보이지만, 추진하다 시피 외부 강제력에 의해 성폭력 사건도 그렇고, 이화 안에서 대

당신의 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11시만 되면 도서관 문도 잠근다고, 기숙사에서는 사생활 통제까지 한다고, 안전을 구가하다 혹여 하는 맘에, 있지도 않은 '성희롱'인가를 단속하기 위한 학칙까지 만든다고.

학 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수, 교직원, 상당수가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때 학내에서도 성폭력이 실재함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간주, 이를 통제하고, 이들을 억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성폭

력에 대한 담론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교수, 교직원, 학생의 성폭력은 여·남의 성별화된 권력에 더하여 또 다른 형태의 권력관계가 개입하게 되는 문제이므로 사실상 신고와 해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들이 공격적인 어조로 역설하는 교권 침해나 명예훼손 여부와는 달리 이는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학습권, 생활권, 결과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상황까지 연출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타의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성범죄를 구성하는 가해,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 - 피해자에 대한 거침없는 비난의 논조(피해자 유발론)을 보전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2.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폭력성??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의 재규정을 통해 사회 인식의 재구성을 시도한 여성주의 일각의 시도와는 별개로 여전히 강간이나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다고

일어하는 물리적인 성폭력에 한하여 이상 행동을 보이는 특정 가해자와 우연히 봉변을 당한 운이 나쁜 피해자를 구조화하며, 많은 사건들을 성폭력으로 범주화함에 있어 그 낱앙스에의 상당한 반발과 경악을 불러 일으키곤 한다.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개념화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색슈얼리티가 이해되는 방식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짚어 보아야 하며, 이를 규정하는 문제의 정치성에 대해 논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초기 논의는 가시적인 폭력과 힘의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논의의 한 측면은 성폭력이 성범죄로서가 아니라 폭력적 공격의 한

성폭력은 여성들을 지속적인 공포의 상태에 두는 '의식적인 겁주기'의 과정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방해하고, 따라서 남성 지배에 도전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형태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성폭력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성적 권리의 침해이며,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를 유지하는 사회적 통제기제로 분석된다.

성폭력이 '성의 문화적 의미를 제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명제

에 착안할 때 이는 Brownmiller(1975)가 역설한대로 성적 공포정치의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들을 지속적인 공포의 상태에 두는 '의식적인 겁주기'의 과정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방해하고, 따라서 남성 지배에 도전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속에서 성폭력은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불평등한 상태에 묶어 두는 하나의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의 일부로 정의된다. 성폭력을 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이러한 분석은 그 행동의 동기가 반드시 성적인 것만은 아니며, 성폭력의 동기는 지배에 고분노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성폭력을 '폭력'의 일환으로 규정하여 바

보았던 이러한 시각은 여성 피해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드러내고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정치화하는데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을 '폭력'으로 개념화할 경우에 명시적인 폭력이 사용된 경우에만 성폭력으로 인정하게 되며, 여성의 저항 필요, 피해자 유발 논리 등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그 대로 유지된다. 특히 이러한 규정에서는 데이트 강간과 같이 규범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은 상당부분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한계를 띄게 되며, 성폭력이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에게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정상적인' 남성의 성적 충동으로 국한시키는 잘못된 인식을 낳게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통한 사회적 통제뿐만 아니라 선택을 배제하고 종속집단의 협력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통제가 선호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에 대한 통제

성폭력은 단순히 '폭력'으로만 규정할 수 없으며, 보다 일상적으로 여성이 갖는 억압과 배제의 경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궁극적으로 폭력뿐만 아니라 강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통찰은 타당하다.

성폭력은 단순히 '폭력'으로만 규정할 수 없으며, 보다 일상적으로 여성이 갖는 억압과 배제의 경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은 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태의 폭력이다. 이는 성적인 행위(sexual violence)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 성차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폭력의 정의 속에는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권력의 문제가 포함되고 있으며, 성폭력의 성립여부는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여전히 피해자 주관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 가해자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한 침해나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의 의도성 유무의 문제로 환원되어 다분히 논쟁적인 지점들을 촉발하지만 일반적으로 권력관계에서 하위를 점하게 되는 피해자들의 2차, 3차 피해여부를 감안할 때 '피해자주관'은 현재의 성폭력 사건을 조망하는 데 있어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왜 '학칙'인가?

서울대 신경훈 교수 사건을 계기로 크게 알려지게 된 대학 내 성폭력은 그 대상에 있어 학생과 교수사이에서만

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과 학생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성폭력이 대상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에 대학 사회가 노출되어 있으며, 대학 성원들 모두가 어느 공간에서건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성폭력의 피해자인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떠한 방어 기제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학 사회 내에서 잠시 이슈화되었다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담론에 의해 사적이고 일회적인 일로 치부되거나 사건의 장본인에 대한 탄핵 정도로 그치는 일이 다반사이다. 따라서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

반(反)성폭력 학칙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응 및 해결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현재의 성담론을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나아가 대학 사회 내 여성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일

기조차 그 힘을 잃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의 부재로 인하여 사건 해결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모든 상처와 고통을 혼자 감수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다.

따라서 반(反)성폭력 학칙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응 및 해결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현재의 성담론을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나아가 대학 사회 내 여성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이는 매순간 성폭력이라는 사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칙'이라는 안정적인 기제를 통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후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내의 성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학칙제정과 적용에서의 원칙

성폭력은 가해자 개인의 '인권을' 문제시



하는 도의적인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범죄임을 전제하였을 때 학칙이 제정,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번째로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공동의 작업에 대해서는 앞서 성폭력 개념화의 정치성 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다.

둘째, 성폭력 학칙은 성폭력의 사회성을 견지해야 한다. 이는 성폭력의 가해자에게도 물론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범죄를 야기한 대학 사회의 성문화 자체에도 책임이 있으며, 처벌 규정이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단죄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학칙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과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는 측면에서 한 때 피해자의 의사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성폭력 학칙은 모든 공동체 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심의는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만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성폭력 학칙은 모든 공동체 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학칙의 적용을 받

는 대학의 3주체 모두가 적용 뿐 아니라 제정과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는 앞서 학칙제정이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대학 내 성문화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보장되어야만 공동체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칙은 유연해야 한다. 학칙 제정운동은 단지 학칙을 제정되는 운동으로 매몰되어서는 안됨을 끊임없이 상기하듯이 이는 여타 다른 사안들과는 달리 성폭력의 특수성이라는 지점에서 동일한 사건이라 해도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정도와 느낌은 매우 다를 수 있으

며, 따라서 학칙 자체
가 사건을 다루는데 있
어서 유인함을 보장하
여야 한다.

5. 이화의 학칙 가안

다음은 이화대에서 성
폭력 학칙 제정을 준비
하고 있는 학칙준비위
원회에서 제시한 이화의 학칙 가안이다.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대내에
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학내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
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여기서 성폭력은 피해자
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합리
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
함한다.

- 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언행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
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
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② 교육, 업무, 고용 기
타 관계에서 교수, 직
원 또는 학생이 그 지
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
행, 기타 요구 등에 대
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

익을 주는 경우

- ③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
게 하는 경우

- ④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사하거
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조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
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OO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는 교수(외국인 교수, 시간강사 포
함), 직원,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 및 피해자 일
방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
다. 특정 가해자가 지목되지 않은 경우

에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 피해자 중심의 원칙
은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의 '피해자 중심
주의'를 천명한 부분이

다. 위의 정의 부분에서 '피해자의 합리
적 주관적 판단'의 내용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거듭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피해자의 입장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
종 정리되었다.

제5조 (피해자 권리확보 및 비밀유지의
의무)

- ① 피해자는 소속 대학교로부터 심리
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등 충분한 보
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
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
진다.

-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
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
아주어야 한다.

- ④ 피해자는 사건의 조
사 및 심의 과정과 처
리방안 등의 내용을 제
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
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
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
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
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담 당 기 관

제1절 성폭력상담소

제6조 (설치) 이화여대는 학내에 성폭



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상담소는 학내에서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다.

제7조 (구성) ①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소에는 상담원, 직원을 둔다. 상담원은 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상담원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고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OO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등으로 명시할 수도 있겠다.

제8조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학내에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상담소는 학내에서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다.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6. 접수된 사건에 대한 기록 및 보존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

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등수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1/2이상으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사건 해결의 전과정에 대한 기록 및 보존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3조 (신고·응답)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은 즉시 장담에 응한다.

제14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사건을 보고 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5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실명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일정기간 자원봉사
4.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5.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

6. 가해자가 제비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 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사건공개의 원칙) 위원회는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일주일 이상 학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시효) 성폭력 사건에는 시효를 따로 두지 않는다.

제18조 (경비) 이화여대는 상담소와 위

위원회는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일주일 이상 학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회의 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제19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XXXX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개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6. 현재 학칙제정의 추이와 쟁점

성폭력근절학칙 제정 운동은 97년부터 이화에서 꾸준히 고민이 되었던 것으로,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 약자의 입장에서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행동 속에서 여성인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구성해 나가기 위한 운동이었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대한법률



이 만들어진 이후, 교육부 지침에 의해 각 학교들에서 성폭력근절을 위한 규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은 무척 고무적이며, 이화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안이 곧 제정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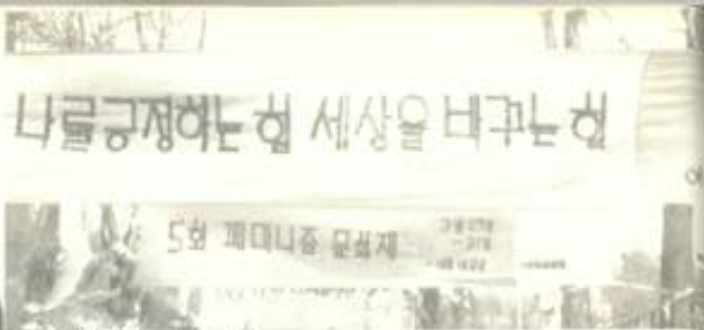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성폭력근절을 위한 규정안은 그 성격상 다른 학칙/규정안들과 다르게 그 제정과 운용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학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인 상황에서, 진정으로 피해자중심의 학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함께 학칙을 고민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근절을 위한 규정안은 기존의 수직적인 대학 질서하에서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의 자유로운 소통, 그리고 풍부한 논의와 고민들 속에서 제정될 때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다.

이들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안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안은 기존의 수직적인 대학 질서하에서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의 자유로운 소통, 그리고 풍부한 논의와 고민들 속에서 제정될 때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다.

단순히 선언적인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제정 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제정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대학의 3주체 - 교수, 학생, 교직원 - 가 모두 학칙제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현재 이화에서는 학생 주체들로 구성된 학칙준비위

원회(이하 학준위)가 내부적으로 꾸준히 학칙을 고민해오고 있으며, 학교와의 공식, 비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며 학칙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의 가안과 학준위에서 제시한 가안에는 상당부분 간극이 있으며, 이를 조율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얼마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반영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실정이다. 덧붙여 성폭력근절학칙이 단순히 그 제정을 위한 제정에 머물고어서는 안되며, 학칙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이화인들의 관심과 제정과정에서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친다. ■



엠마(혜성, 보교 98)

비(윤미, 보교 98)

마리(규, 영문 98)

데스(수림, 경영98)

함께 하고

가을(지선, 경영 97)

크래쉬(계영, 정의 99)

있는 우리

환(정인, 경영 99)

치즈(정원, 심리99)

있는 우리

갑(지현, 철학99)

소머즈(현주, 철학 00)

나무(현의, 철학 00)

바리(아라, 철학 00)

앞새(세영, 조소 00)

함께 하는 우리

은초, 짜투리, 모기, 여울업마, 불, 쌀, 엑스, 큰넙, 꿀
라, 애로, 불랙, 사과, 별나, 엠, 라기, 큐라, 포도, 랍

그리고, 우리 과녁이든

리다(지영, 정통99)

냄새(지희, 유교99)

넝쿨(은주, 회·판00)

아래(고은, 국문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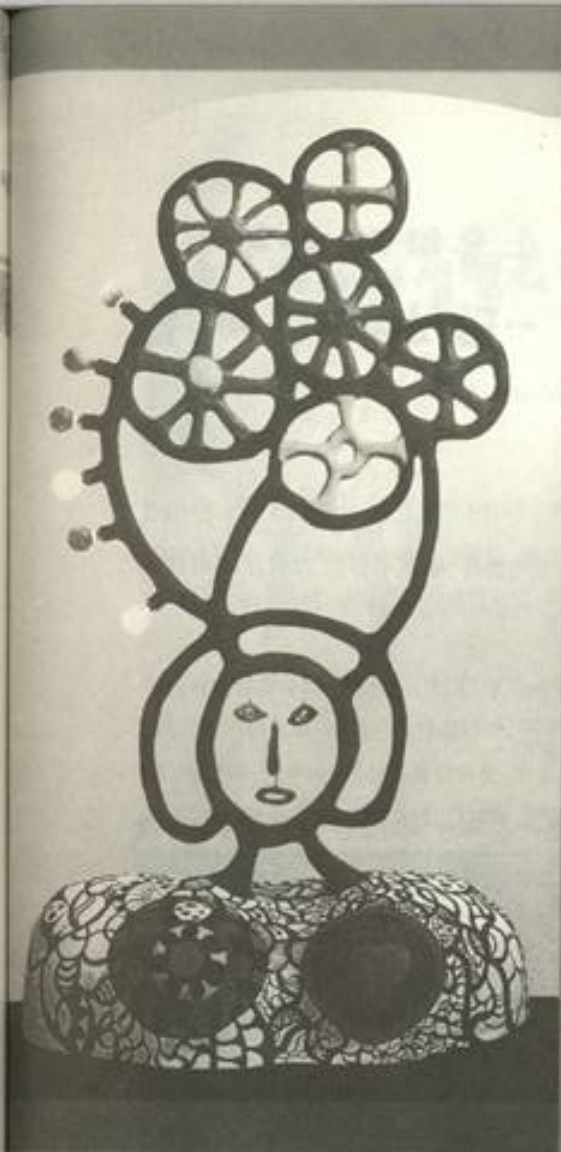
다름(은진, 약학00)

땡(지현, 자연과학01)

공포(윤정, 법학01)

어따(진희, 사과01)

하라(정민, 외문01)



결코,

한번도 소유하지 못한

당신들의, 내 몸
3회 서울여성영화제
바비인형의 제국

결코, 한번도 소유하지 못한 -당신들의, 내 몸

갑 (철학 99)

답은물 : 미스코리아, 마네킹, 순정만화 속 여주인공, 그리고 바비인형.

다른물 : 그 '뱀'의 여성들의 몸

그렇다면,

바비인형 : 이상화된 여성의 몸?

여성의 몸... 다층적인 여성억압들만큼이나, 어떤 의미로는 '여성'을 주되게 표상하는 그 몸 위에 얹혀 있는 술한, 그리고 폭력적인 시선들로부터 단 한번이라도 자유로워 본적 있는가?

나의 육체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모성의 메타포다.

나의 육체는 끊임없이 성예화되는, 그리하여 남성의 시선으로 재단되고 마는 상품이다.

결국 나는 한번도 내 몸을 온전히 가져본 적이 없다.

나의 몸은 더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페미니즘 문화제<Fat! So? - 몸에 관한 유쾌한 이야기> 마지막날, 3월30일에는 여성의 몸, 외모, 그리고 어느덧 '이상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바비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화인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3월 30일 5시 가평관 319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회 서울여성영화제

아래 글은 <http://www.wffis.or.kr>에서 참고하였습니다.

2001년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3회 서울여성영화제가 열립니다. 199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회를 맞는 서울여성영화제는 상영편수를 대폭 늘리면서 상영관도 2개관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서울여성영화제는 비경쟁·초청 영화제이면서 일부 경쟁을 도입한 영화제로, 그동안 격년으로 개최되어왔습니다. 특히 경쟁부문인 '한국 단편 경선'을 통해 미래의 한국의 여성영화인력을 발굴·지원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한국의 여성주의 영화제작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아시아 단편 경선 본선전출작

1. 가타 스펀트 1.1/오진영
2. 그랜미/조성연
3. 달이 지고 비가 옵니다/박혜민
4. 동동/김경란
5. 리플레이/한혜진
6. 모델/박남원
7. 병숙의 무언가/김태욱
8. 상식/이민경
9. 싸이코 드라마/윤재민
10. 알 수 있다/엄윤주
11. 이미지/오정신
12. 호모 파베르/윤은경, 김은희
13. Desabile-toi라는 이름의

비디오 테이프/이경원

이제 3회를 맞아 서울여성영화제는 '한국 단편 경선'을 '아시아 단편 경선'으로 확장하여 한국 여성영화인력의 무대를 넓혀주고 아시아 여성영화인력을 감싸안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는 세계 영상문화 전반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여성적 시각의 중요성에 따른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상문화, 영상산업의 탈식민지적 여성주체의 형성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기에, 서울여성영화제는 '아시아 단편 경선'을 통해 이 일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바비 인형의 제국 I, Doll

:The Unauthorized Biography of America's 11 1/2"

Sweetheart



- 미국 / 1996년 / 57분 / 비디오 / 다큐멘터리

- 각본/감독/제작 : 툴라 아셀라니스(Tula ASSELANIS)

바비는 195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마텔사에서 탄생했다. 아니 이제 더 이상 바비의 국적은 미국이 아니다. 흑인 바비, 기모노를 입은 바비, 한국의 디자이너 이영희가 만든 한복을 입은 바비에 이르기까지 이제 바비는 마치 코카콜라처럼, 또 할리우드 영화처럼 전세계에 통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현재 바비는 전량 중국에서 생산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50년대 미국에서 첫 등장한 바비가 어떻게 미국을, 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를 점령해왔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인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바비의 역사는 미국의 현대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인형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고대의 유적에서 발굴된 인형들로부터 시작한다. 지금으로부터 반년 후, 그때의 사람들에게 바비는, 우리에게 그리스 인형이 그런 것처럼 역사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런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바비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60년대 와서 바비는 처음으로 직업을 가졌다. 60년대에 바비는 간호사였다. 의사는 물론 바비의 남성파트너인 켄! 그리고 여성해방운동이 물결쳤던 70년대를 지나 90년대에 오면 바비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또 '검은 것이 아름답다 Black is Beautiful'던 시절에는 흑인 바비가 등장했다. 그렇게 바비는 미국의 현대사를 몸으로 증언한다.

바비처럼 만들어주세요!

바비는 완벽한 여성이다. 여성들은 바비처럼 되기를 꿈꾼다. 바비의 얼굴윤곽, 봉긋한 가슴, 잘록한 허리는 성형수술을 받고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하물며 그 날씬하고 아름다운 바비조차도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바비를 모방하는가 아니면 바비가 우리를 모방하는가?



Tula Asselanis

툴라 아셀라니스는 11년 동안 비디오 카탈로그 제작자, 영화연출자, 제작자 그리고 광고 아트디렉터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바비 인형의 제국>은 그녀가 처음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이다. 바비 인형을 생산하는 마텔사가 자리잡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라면서 3살 때부터 바비와 놀았던 자신의 경험이 이 영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영화과 졸업,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졸업.

툴라 아셀라니스는 조사기간 6년, 제작기간 2년의 작업 끝에 '11½인치 인형의 비공식적 자서전'을 완성했다. 그녀는 긴 제작기간에 값하는 각종 희귀자료들과 구체적인 수치들, 또 풍부한 인터뷰 등을 통해 흥미롭고 독특한 역사물을 구성했다. [3]

여성위원회 세미나 중계

몸에 대한 억압을 넘어서 성적 쾌락으로

-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지점인 몸에 대한 결정권과 성적 쾌락에 대한 여성위원회의 세미나를 일부 방청하였습니다.

박리 여성의 몸이 억압받는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는 늘, 그렇다면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게 성적인 쾌락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돼.

치즈 나도 그런 것 같아.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경험이었다면 나도 적극적으로 쾌락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찾으려고 노력했을텐데, 내 안에는 피해의식이 늘 있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걸.

갑 하지만 몸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여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적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나는 무엇이 과연 성적 쾌락인가에 대해서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박리 그럼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성적인 쾌락이 무엇인가, 그걸 누리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여성 나는 요즘 성적 욕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하하* 왜냐면 생활 자체가 억압적일 때 저는 성욕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우미 근데 나는 솔직히 자위를 통해서 오르가즘에 달는 경우가 더 많은 한데, 그래도 자위는 왠지 시시한 거 있지. 아무래도 나는 성적인 관계 안에서 얻는 쾌락이 더 좋아. 삽입 자체의 쾌락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쾌락을 느끼는 것을 보는 게 더 즐거운 것 같거든.

열마 관계 안에서의 쾌락이라... 음, 나는 자위를 할 때 환타지가 없거든? 그런데 자위를 하면서도 내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내 무의식 속에 '관계 안에서의 쾌락'이 표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해. 즉,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성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이미 내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게지.

갑 난 그 쾌락이라는 것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단지 성적인 실천에서 나오는 감각적인 쾌락뿐 아니라, 수행적인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적 지식에 대한 알의 쾌락도 역시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또 개인적으로 성적인 쾌락을 구성하는 혹은 실천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할 수도 있구. 내 말은, 다양한 성적 쾌락이 있을 수 있고, 그 개인적인 선택은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거야.

가을 하지만 개인적이라고 여겨지는 성적인 쾌락의 획득 방식에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긴 힘들지 않나?



여 위 나도 어디까지가 사회적이고, 어디까지가 개인적인지 말하기 힘든 모순에 자주 부딪히게 돼. 예전에 가슴을 만지며 자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자위를 할 땐 보통 성기나 성감대를 자극하게 되잖아. 그런데 나는 보통 가슴을 만지면 흥분되지 않거든. 그래서 만약에 가슴이 성애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내가 육체적인 쾌락을 느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마가 성애화되어 있었다면, 나는 아마 이마를 만지면서 자위를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지. 즉, 성적인 쾌락은 개인적인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성애화되는 과정을 거쳤고, 그럼으로써 각 개인들의 성적인 실천의 선택도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야.

바 리 인간의 몸이 성애화되는 과정이 모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여성의 몸이 성애화되는 과정이 억압적일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이 주로 여성의 몸을 대상화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또, 그것은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성의 성적 쾌락이 성애화된



자신의 성기를 이용해서 성적 만족을 주는 것으로 구성되게 한 주범이기도 하고 말야. 예를 들어서 가슴의 노출은 성적인 자극이지만, 페니스의 노출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인 기제는 불공평하잖아.

갑 하지만 우리가 도착의 범주나, 혹은 소년애, 동성애, 시체 애호증, 물신주의 등에 대해서 일괄적인 성적 쾌락을 강요해온 사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듯이, 각각의 개인들이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권력관계 안에서 쾌락을 느낀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성적인 실천 속에서 어디까지가 개인적인 선택이고 어떤 것이 구조적인 영향력인지 그 누가 말할 수 있을까.

..... (후략)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어온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들 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의문 하나. 피해자로 규정되는 나의 성적인 쾌락은, 그럼 어디에?

이렇게 성애화되고 기표화된 내 몸에서 과연 나는 성적 결정권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



6회 페미니즘 문화제 **FAT? SO!** 행사 일정

첫째날 3월 26일(월)

늦은 5시 이화광장

개막제

퍼포먼스 + 공동체 놀이 + 액션공연

둘째날 3월 27일(화)

늦은 5시 가정관 319호

네 자궁을 노래하라
-피임을 둘러싼 즐거운 이야기

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강연
+ 배란팔찌 만들기

셋째날 3월 28일(수)

학생문화관 로비

방자한 나의 육체
-어쨌든 너가 상관할 바 아니지
3시 20분 기습 퍼포먼스(진소원)

넷째날 3월 29일(목)

학생문화관 앞, 휴웃길 숲길

반전(反轉)
-성폭력 근절학칙을 향하여

다섯째날 3월 30일(금)

가정관 319호

**결코, 한번도 소유하지
못한 - 당신들의, 내 몸**
「바비인형의 제국」상영

모기 고마워요. ^^

영 | 기 | 동

56 6회 페미니즘 문화제

출처: 한국은행, 2004년 12월 14일 기준

녹차 베지밀 | 싱그러운 자연의 건강



건강한 하루, 활기찬 하루 -

- 눈사람의 몸과 머리는 신문으로 다려놓은 두 원통으로 만든 게이트오버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강력한 항빙설계로 설계된것을 지켜볼만하다.
- 미국인인 B.C.은 9월중 두가지 400, 600, 800을 위한 성형설계를 위한 3개 열합으로 보강하였었다.
- 눈사람의 EXXX는 시공을 조판하고, 역설의 날면은 물결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 열의 이소플로포우 배는 전보통에 하고, 특히 역설의 전강화전으로 중요하다.



주식 정·식 품
DA CHUNG'S FOOD CO., LTD.

▲자재문의 080-000-8898 027553-8898 www.vegamil.co.kr www.pendabean.co.kr

www.1000000000.com • www.1000000000.com • www.1000000000.com • www.1000000000.com • www.1000000000.com
www.1000000000.com • www.1000000000.com • www.1000000000.com • www.1000000000.com • www.1000000000.com